최근 한 대학에서 리더십 특강을 해달라고 했다.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엔 리더십의 '리'자도 못 들어 본데다, 지금 하는 일도 수십, 수백 명을 이끄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니 할 말이 없다고 꽁무니를 뺐다. 그런데 담당 교수 왈 "엄청난 리더십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니 직장에서 일한 경험과 거기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"고 했다.

내가 구경한 리더십이라면 몇 시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책으로 공부한 리더십 이론을 읊어도 되고, 미국 특파원 하면서 관찰한 대통령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늘어놓을 수도 있다.